

2021년 서울 공립 유치원 교사 임용시험 합격 수기

응시지역	서울	강사	초수: 배샘(직강) 재수: 민샘(인강)
공부경력	재수	병행여부	초수 : 올인 재수 : 7월까지 누리보조
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년 추시 : 교육과정 64.33점/ 논술 18점 = 82.33점(0.34차로 1차불합) ● 2020년 정시 : 교육과정 62점 / 논술 20점 = 82점 (1점차로 불합) ● 2021년 정시 : [1차] 교육과정 69점 / 논술 18점 = 87점 (컷플 6.33점) [2차] 심층면접 39.47점 / 과정안 14.4점 / 수업실연 38.3 점=92.17 →총점수 179.17점 (최종컷플 12.56점) 		
등수	9등		

■ 안녕하세요! 합격하면 합격수기를 꼭 쓰고 싶었는데 이렇게 정말 합격하여 수기를 쓰게 되다니 너무 기뻐요. 하느님 감사합니다 ♡

저는 사립유치원 2곳에서 각각 3년, 1년 일해서 총 4년 현장경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일하던 사립유치원이 모두 폐원을 하게되어서(^_ㅠ..)아 이젠 임용을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자연스럽게 임용시험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I . 초수] - 2019.01~2019.12

■ 배지윤 강사님 커리 (직강)/ (초수에게 적합하다는 소문+OT듣고 강사님이 맘에 들어 선택!)

직강 수업을 들으면 다른 사람들 공부하는 것도 보며 자극받고 현장감이 있을 것 같아 직강수업을 신청해서 들었습니다. 배샘이 교육과정 내용도 재밌게 잘 알려주시고 정서적으로도 많이 지지해주셔서 초수때 즐겁게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또 배샘이 스터디를 1월에 구성해주셨는데 스터디원들끼리 진짜 맘도 잘맞고 의지가 잘 되어서 서로 구술스터디도 같이 하고, 직강 끝나고 노량진에서 밥도 함께 먹으며 수다도 떨고.. 초수 땀 그래도 많이 안 힘들어하고 즐겁게 공부한 것 같아요.

전 초수 때 이 시험을 합격할 줄 았았어요. 엄청 자만한거죠. 그래도 나름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추시, 정시 모두 1차 불합격이었어요. 두 시험 각각 소숫점, 1점 감점이라 진짜 충격과 안타까움이 컸어요_ㅠ_ㅠ..

시험지 펼쳐서 내가 왜 떨어졌을지 살펴보니 '개념 정의, 특성을 대충 외움 + 서술문제에 대한 답변이 두루뭉술하고 구체적이지 않음 + 내 맘대로 골라 외움' 이 가장 큰 이유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재수 때에는 이 부족했던 부분들을 위주로 공부해야겠다고 방향을 설정했어요.

[II. 재수] - 2020.02~2021.01 (1월~7월까지 누리보조 일병행)

■ 민정선 강사님 커리(인강) + 배지윤 강사님 논술 / (민샘이 다뤄주는 내용이 가장 많아서 선택!)

< 교육과정 >

-교육과정 공부는 일단 강의를 들은 후 최대한 빨리 복습을 한 것이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강의 듣고 나면 진도 나간 부분을 다시 한번 주욱 읽어보고 저만의 요약본을 바로 만들면서 암기를 했어요. 합격수기를 보면 충분히 이해하는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저는 강사님 강의를 집중해서 들으면서 바로 내용 이해를 하려고 노력했고 수업 이후에는 바로 복습하며 암기를 했어요. 강의를 듣고 내용을 다 이해했다고 생각해도 문제를 풀다보면 오개념이 조금씩 꼭 있더라고요. 이런 오개념은 문제를 풀 때 가장 잘 잡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이버 밴드로 아는 선생님들과 개각론 문제를 내고 풀기 스테디를 하거나 문풀, 모고 때 여러 문제를 풀면서 오개념들을 잡을 수 있었어요. (민 문풀 강추)

-암기는 어떻게 했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저는 두문 암기법을 정말 많이 활용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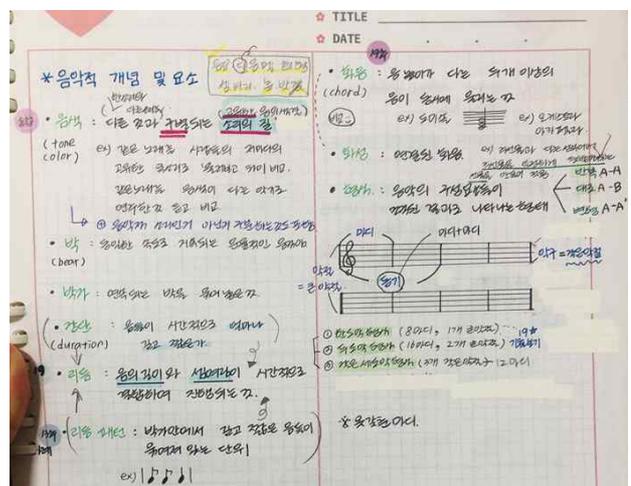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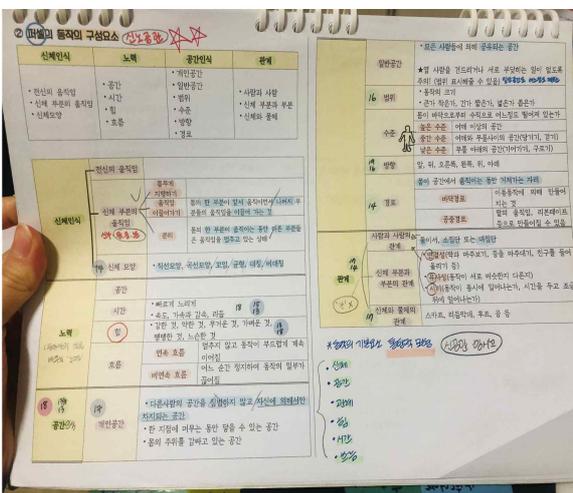
개론 각론 공부를 하다보면 용어가 다 비슷비슷한 것처럼 느껴져서 개념별로 용어를 정확하게 암기하는게 참 어렵더라고요. 두문 암기법으로 암기를 하다보면 독특한?문장이나 단어가 새로 만들어져서 머릿속에 더 잘 각인이 되더라고요!! 여러번 읽어도 용어가 정확히 암기가 안되시는 분들에게 좋은 암기 방법인 것 같습니다

-교육과정 복습은 스테디로 진행했어요. 민샘 커리인 선생님 3분이랑 함께 개론, 각론 문제내기 스테디를 했어요. 개론 각론 복습도 할 수 있었고, 오개념을 잡거나 내가 강의 들으며 놓친 부분 파악하는데 도움이 정말 많이 되었어요! (모두 올해 합격하셨습니다☺)

각론 강의 들어갔을 때부터 시작해서 매일 개론파트 서로 문제내고 문제 풀 것 인증하고, 개론 문풀 들어갈 때 각론파트 문제 내서 풀어보면서 개각론 잊어버리지 않게 복습했는데 개념 이해하고 오개념 잡는데 도움 많이 됐어요.

-☆ 교육과정은 제가 요약본을 만들어서 요약본 가지고 계속 인출 복습했어요.

(손으로 써서 만든 것, 컴퓨터로 만든 것 합쳐서 봤어요!)



예를 들어 음악적 개념 및 요소를 공부한다고 하면 요약본에서 목차 제목인 '음악적 개념 및 요소'만 빼고 아래 내용은 가린 후 종이에 주욱 백지 써보면서 인출복습을 했습니다. 인출하다가 헛갈리거나 잘 안 외워진 부분은 연필로 체크표시를 해두었고 체크표시가 반복된 개념은 포스트잇에 적어 책상 앞 잘 보이는 곳에 붙여서 자주 보며 외웠습니다. (책상 앞에 포스트잇으로 붙여서 여러번 본건 정말 저절로 잘 외워지더라고요!)

-교육과정 복습을 얼마나 했는지 표시를 안해두면 잘 모르겠어서 표를 만들어서 복습을 얼마나 했는지 스스로 체크해보았어요. (파트 누적복습을 하기 보다는 이 표를 보며 부족한걸 더 복습했어요)

개념			과문				
배양	사상사	취미교과	신체교육	인성(인간)	의사교육	생활과학	유아 발달
FT	FT	FT	FT	FT	FT	FT	FT
과학	부모교육	미술교육	미용교육	음악교육	체육교육	사회교육	교육과정
FT	FT	FT	FT	FT	FT	FT	FT

이 표를 보며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더 복습하려고 했습니다. (ex, 발달파트 전체를 복습했다하면 막대기 하나를 긋는 것)

-민샘문풀..정말 강추예요. 전 배샘커리도 참 좋았지만 재수 때 민샘 문풀 풀면서 민샘 선택하길 정말 잘했다 싶었어요. 모든 개념을 문제로 풀어볼 수 있고 문제 풀면서 오개념도 진짜 많이 잡히고 서술 연습도 많이 됐어요(하트)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풀 때는 진짜 고통스러운데 공부에 도움 정말 정말 많이 돼요. 문제 풀다보면 응..? 좀 너무 꼬았는데?하는 문제는 자체 스킵하기도 했어요.(기출은 꼬아서 만나오니까요) 누리보조 병행을 하다보니 시간이 너무 없어 자탐은 결국 다 못풀었어요 엉엉.. 문풀은 양이 너무 많은지라 오답을 따로 하기 어려워져 틀린문제에 인덱스 붙여서 모아두었다가 공부시간 여유 있을 때 종종 펼쳐서 틀린 것만 풀었어요. (틀린문제 다시 보는 것 매우 중요!)

-모고는 배, 민, 임 이렇게 풀었고 민 모의고사는 일요일에 스터디 구해서 캠퍼스터디로 시간 실제처럼 재고 현장감있게 풀었어요.

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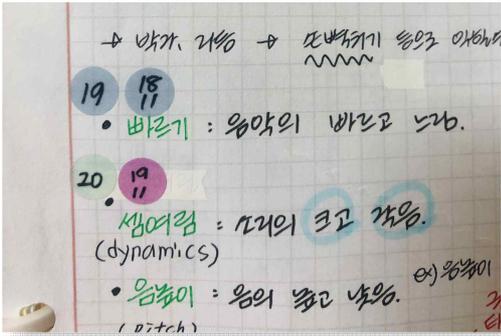
7.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오답	정답
1.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모의고사 오답은 틀린문제 아이패드로 따로 모아서 시간날 때 다시 풀어보았습니다. 다시 풀어도 또 틀리면 연두색 동그라미를 쳐서 나중에 다시 한번 풀었어요. 아래에 답도 작게 캡쳐해 넣어서 답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어요.

< 기출 >

-기출은 초수 때 옛날기출부터해서 개각론 파트별로 정말 많이 반복해서 풀고 지문도 꼼꼼히 읽어봤어요. 초수 때 기출을 반복적으로 많이 봐서 재수 때에는 기출 겨우 파트별로 한번씩만 풀어보고 시험보러 갔어요. (시험보기 이틀전까지도 기출 1회독을 못했어요 ^^...민샘 기출 인강도 못들었어요 하나도..) 기출공부할 때 중점을 둔 건 '1. 문제 푸는 감 익히기 2. 문제 서술 방식 익히기 3. 문제에 출제는 안되었지만 지문에 나온 개념 뭐 있나 보기' 였던 것 같아요.



기출에 출제되었던 건 스티커에 출제년도를 적어서 요약본에 붙여두었어요. 그럼 기출 빈출개념이나 출제 예상 개념들이 뭔지 생각하며 공부하기 좋았습니다.

< 논술 >

-논술은 2년 내내 배샘강의로 들었어요. 그래도 논술 18점~20점 나올 수 있었던건 배샘 논술 덕인 것 같아요! 특히 전 강사문제보다는 기출문제를 위주로 계속 논술을 써보았고, 카페에 논술 고득점 복기글이나 배샘 수강생 우수답안을 필사하면서 문장구성을 매끄럽게 하는 법과 논지파악하는 법, 주장에 대한 예시와 근거 작성법 등을 익힐 수 있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잘 쓴 답안이나 모범 답안은 모두 모아서 시간날 때마다 읽어보았어요. 모범답안을 많이 읽거나 필사해서 내면화하면 문제 풀 때에도 분명 도움이 되거든요!

-논술도 역시 주 2회 네이버 밴드 스터디를 했어요. 각자 논술 시간 재서 쓰고 업로드 한다음에 서로 피드백해주는 스터디를 했어요. 후반 가서는 시간이 없어서 그냥 쓴 것 인증만 했어요!

<고시문 & 하이실 >

-고시문은 매일매일 타자로 쳐서 외웠어요. 처음엔 하루에 한 영역씩만 하다가 나중엔 조금씩 양을 늘려서 하루에 '총론, 신, 의' 이런식으로 했고 후반 가서는 하루에 전 영역을 모두 타자로 쳤어요.

고시문은 진짜 매일 매일 써서 외우는 방법밖엔 없는 것 같아요. 고시문 암기송 같은거 유튜브에 있는 것 같던데 노래로 암기할 분은 참고하세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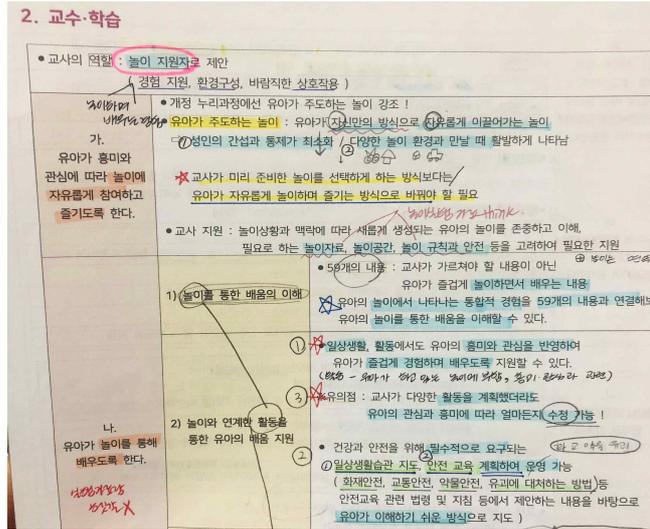
-하이실..전 초수때에도 해지서 공부를 너무너무너무너무 싫어하고 힘들어했어요..

뭔가 아름다운 말들 대잔치 같고.. 그말이 그말같고..모고 풀어도 항상 해지서 문제만 틀렸어요 주룩..

초수땐 10월에도 해지서 문제만 계속 틀려서 울면서 요약본 만들고 그랬답니다..

재수 때에는 3월에 하이실책 리드릭에서 주문해서 받아가지고 일단 천천히 두 번정도 정독했어요. 그 이후에는 민샘 강의 + 배샘 하이실 강의 들으면서 구조화해서 이해하고 암기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이실이 워낙 줄글이라 구조화가 되게 안되더라구요..) 여름정도에는 하이실 정리본을 따로 타자쳐서 만들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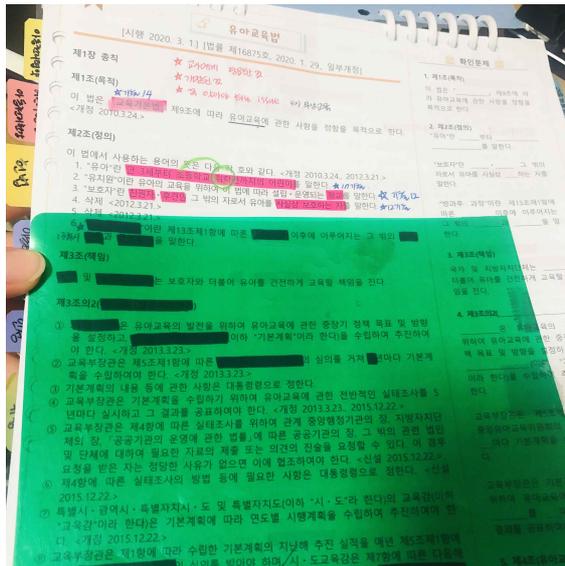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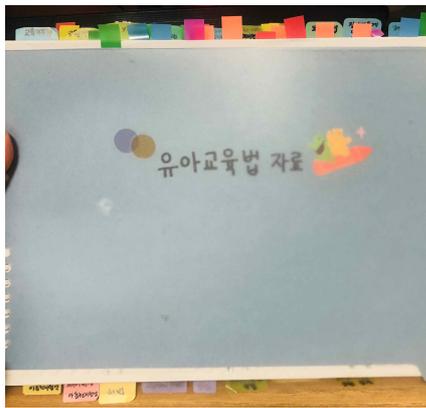
그거 보면서 하이실 암기를 했고 정말 하이실 웬만하면 외울 수 있는건 다 달달달 외웠어요. 해설서에 보면 영역별 내용 설명 나와있잖아요. 그것도 다 외웠어요.ㅎ..이거 외운 덕에 이번에 교육과정 문제 풀 때 도움 많이 됐어요. 또 2차 공부할 때에도 도움 많이 되니 1차 공부할 때부터 하이실 많이 읽고 외울 수 있는건 외워두는게 좋을 것 같아요. 다른 강사들은 하이실 어떤걸 강조하는지 궁금해서 여름부터는 여러 강사 커리 수강하는 분들 모아서 하이실 문제내고 풀기 스티디도 진행했습니다.



< 법 >

-법은 초수 때 1월부터 공부한게 있어서 재수 때에는 여름부터 법자료 모아서 공부했어요. 매일하기엔 시간이 부족해서 이틀에 한번씩 공부했어요.

(※공부한 법: 유아교육법, 시행령, 시행규칙/아동복지법, 시행령, 시행규칙/ 교육기본법/교원지위법/ 학교보건법/어린이식품안전 특별법/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도로교통법/특수교육법, 시행령, 시행규칙/감염병 예방법/헌법/아동학대 처벌법/인성교육진흥법/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다문화가족 지원법/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아동권리 협약, 어린이헌장, 아동권리헌장)



가려지는 형광펜, 필름지 세트 아시죠?

법제처에서 법자료 뽑아서 중요부분 형광펜으로 칠하고 필름지로 가려서 공부했어요 !

< 스터디 >

-기상인증 고시문 스터디 / 기상 캠 스터디 / 하이실 문제내고 풀기 스터디 / 주 2회 논술 인증 스터디/
 개론 각론 문제 내고 풀기 스터디 / 모고 풀기 캠 스터디 / 공부 시간 인증 스터디(열폼타)

☞ 진하게 표시한 스터디가 가장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특히 개론 각론 문제내고 풀기 스터디가 진짜 좋았는데요,

발달 29-37	발달 38-55	발달 57-75
발달 76-89	발달 90-115	발달 116-130
사상 158-175	사상 176-194	사상 195-212
사상 213-233	사상 234-255	놀이 260-272
놀이 273-290	놀이 293-308	놀이 309-318
교사 363-390	교사 391-408	교사 409-417
교사 418-427	교사 428-455	부모 540-568
부모 569-588	부모 589-612	부모 613-628
복지 661-684	복지 685-705	



이렇게 파트별로 범위를 나누고 매일매일 문제내고 푸는 스터디를 했습니다.

<기타>

Q. 1차 점수 컷플 비결

1. 내 맘대로 버리고 외우지 않기☆☆☆

-공부하다보면 이걸 안나오겠지? 하고 생각되는 것들이 있는데 내 맘대로 판단해서 안외우고 하지 않기! 외우기 싫을 때 이 생각을 하면 외우게 되더라구요. 지금 이걸 외우기 싫은 고통이랑 시험장에서 이걸 안 외운채로 마주했을 때 고통을 비교하면 후자가 훨씬 크기 때문에 이걸 생각하며 최대한 많이 외우려고 했어요. 7대 안전도 사람들이 작년엔 나왔는데 또 나오겠어? 해서 버린 분들도 있지만 전 진짜 조사까지 달달 외워서 올해 소중한 2점을 챙길 수 있었습니다.

2. 개념 정의는 책에 나온 표현과 최대한 비슷하게 외우기☆☆☆

-초수 때 떨어진 이유 중 하나가 책에 나온 개념 정의대로 안외우고 내 맘대로 바꾼게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재수 때에는 책에 나온 표현과 거의 비슷하게 정의를 외우려고 노력했어요. 개념이나 단계특성 같은거 외울 때 배셈책+민샘책+민샘작년요약본+웹지도+다른 합격생 요약본(+추가로 전공서적)까지 다 살펴보면서 어떤 정의가 가장 외우기 좋고 자세한지 살펴보고 가장 적합한 내용을 요약본에 적고 그걸로 외웠어요(힘들었습니다ㅠ)

3. 서술 문제는 최대한 자세하고 친절하게 기술하기☆☆☆

-서울 합격한 선생님께 서술 잘 하는 비결이 뭐냐고 하니 최대한 자세히 서술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번 시험에서도 'oo의 도덕성 발달 단계 특성' 쓰는 문제풀 때 단계명은 안물어봤지만 'oo이는 ~단계로 ~'라고 서술 문장을 시작하며 무슨 단계인지도 친절하게 서술했답니다. 단계특성도 달달 외운걸로 핵심 키워드 넣어서 정확하게 기술하기!

Q. 공부시간 & 장소

- 하루에 8시간 정도 공부한 것 같아요. 진짜 진짜 공부가 안돼도 하루 5시간 이상은 한 것 같습니다
- 대부분 집에서 공부했고, 여름엔 근처 대학 도서관이나 토즈 독서실 가서 공부했어요. 근데 전 집공파라 집에서 공부하는 걸 좋아했답니다.

Q. 오프하는 날은 없었나요?

-여름정도까지는 일주일에 한번 남자친구만나서 놀았고 여름 지나서는 아침부터 오후 6시 정도까지는 공부하다가 저녁에만 만나서 놀고 그랬어요. 시험 한달? 남았을 때에는 진짜 잠깐 얼굴 보거나 산책하는 정도로밖에 못만났어요.

Q. 서술형공부는 어떻게 했나요?

-배샘 논술 들으면 서술형문제 푸는 방법도 친절하게 알려주세요. 특히 사례랑 버무려서 특성 진술하는 문제를 어려워했는데 배샘수업 들으면서 서술틀을 익힐 수 있었어요. 또 민샘 문풀, 모고에 서술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서술 문제를 많이 풀면서도 서술형 문제를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 암기할 때 개념정의를 자세하게 외우면 서술형 답 쓸 때 휘어어얼씬 수월했어요.

Q. 건강관리는 어떻게 했나요?

-배수 때 목이랑 어깨가 너무 아파서 한의원 다니고 요가하고 그랬어요. 근데 코로나 때매 요가를 못가서 집에서 폼롤러로 목이랑 어깨 자주자주 풀어주고 그랬어요. 또 2단 독서대 사용해서 목에 무리 가지 않도록 했습니다. 밸런스온 방석 쓰는 것도 허리에 무리 안가게 하는데 도움 됐어요.

그 외에도 종종 한강 산책하기, 비타민 챙겨 먹기 등으로 건강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Q. 멘탈관리는 어떻게 했나요?

-저는 크리스찬이라 성경 말씀보면서 마음을 다잡거나 매일 밤 기도하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했어요. 공부에 대한 동기가 떨어져 공부가 너무 하기 싫을 때에는 공부관련 명언, 좋은 글귀들 찾아서 저장하고 읽어보기도 했습니다. 또 공부하면서도 내가 꼭 붙을거야!!라는 생각보다는 그래~공부 이렇게 열심히 해도 안되면 하느님이 다른 좋은 길로 인도하실거야~생각하며 합격 부담을 좀 내려놓려고 했어요. 진짜 공부 너무 하기 싫고 힘들면 공부 조금만 하고 쉬는 시간을 많이 가졌답니다. 놀다보면 불안해져서 공부 더하게 됨.. 좋아하는 노래 들으면서 바깥풍경 보며 산책하다보면 생각 정리할 시간을 가질 수 있어 멘탈 다잡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Q. 공부 꿀 아이템

- 노이즈 캔슬링 되는 이어폰(집공러들에게 좋음)/ 아이패드&펜슬(자료 저장되는 민커리라 아주 유용했음) / 2단 독서대 (목아픈 사람들에게 추천) / 파파스탠드 (광명찾음..굿) / 모눈 연습장 (모눈 연습장에 인출하면 그렇게 잘되더라구요ㅎㅎ개인취향입니다) / 밸런스온 방석 (허리 안아픔!)

Q. 연/월/주/일 단위 계획?

-따로 연/월/주별 계획을 세우진 않고 그때 그때 필요한거, 밀린거 공부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대신 해 이실, 개각론 어느정도 암기 된 이후로는 매일 고시문 타자치기, 해이실 일주일동안 전체 1번 인출, 논술 주2회 쓰기, 하루에 개각론 2~3과목 인출, 격일로 법이랑 안전공부, 시간 되면 오답노트(문풀, 모고) 보기 ! 이런식으로 보낸 것 같네요~

Q. 재수생 2차 병행 추천하시나요?

-전 '1차 합격해야 2차를 볼 수 있다, 1차 고득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1차 준비기간에는 1차 공부만 하는게 좋겠단 생각입니다. 초수 때 공부 탄탄하게 하셨다면 재수때 1차 공부하면서 놀이사례집정도 같이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사례집 내용이 정말 많을뿐 아니라 (전 하나도 못읽음 ..) 사례집 내용 가지고 2차 문제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안전 이야기 나누기 등 다양한 유형까지 다함!) 나중엔 부족한 수업을 더 연습할 날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엔 자신이 더 하고싶거나 부족한 수업 유형을 말하면 다른 사람이 문제 만들어줘서 그걸로 수업 연습하고 했어요. 피드백은 조건 충족했는지, 조건이 잘 보여지는 수업을 했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졌고 어떻게 하면 이 조건을 잘 드러낼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해보기도 했어요. 면접은 답변이 타당한지 피드백해주고 또 나라면 이런 답변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공유해서 모범답안?을 만들어갔습니다. 다같이 열심히 스테디해서 이번에 준비하신 선생님들 모두 서울에 합격하셨답니다!!!!!!◎

-코로나 심각할 때 온라인으로 진행했고 오프로도 2주?정도 만나서 마스크끼고 실전처럼 연습해보았습니다. (종로에 있는 '시간공방'스터디룸 좋아요!ㅎㅎㅎ)

-면접이나 수업실연은 영상으로 찍긴 했는데 많이는 안보게 되더라고요. 대신 스테디하고나서 부족했던 면접이나 수업을 다시 한번 책상에 앉아 증얼증얼 해보기도 했어요. 한번 다시 해보는 것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혼자서!

-전 자료를 단권화하지 않으면,,공부가 잘 안되는 타입이라 면접, 수업만능들 모두 정리해서 책으로 만들어서 만능들, 수업 유형별 과정안 유의사항, 면접답을 외우려고 노력했습니다! 면접은 어느정도 답안을 주제별로 외워놔야 답변할 때 휘어어어얼씬 수월해요. 장애유아 지도방안, 다문화 가정 유아 지도방안 등 주제별 답변을 어느정도 외우는데 좋습니다. 특히 서울은 시사 문제, 강점 및 약점을 묻는 문제가 면접으로 자주 나오므로 시사 문제 만들어서 풀어보고, 자신의 강점 약점을 미리 정해서 외워두세요! ☆ ☆ (강점 약점 미리 정해둔 덕에 이번 즉답 수월히 풀었습니다당!)

-전 사실 현장경력이 있어서 수업에 더 자신이 있었고 면접이 진짜 어려워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요, 실전에서는 수업실연 점수가 낮았고 면접이 잘 나왔더라고요.

대기실에서 번호 뽑기 전까지 좀 떨렸는데 번호 뽑기에서 제가 원하던 4번을 딱 뽑았을 때, 하느님이 안심하라고 해주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면서 마음이 엄청 평온해지고 든든해졌어요..! 진짜 신기하게도! 그래서 덕분에 수업실연, 면접 하나도 떨지 않고 할 수 있었고 수업실연, 면접하면서도 '아 지금 태도 당당하고 자신감있게 잘 보이겠다'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태도도 진짜진짜 2차에선 중요한 것 같아요. 수업실연은 하고 나왔을 때 아..약간 이상한 것 같은데?싶은 느낌이 들었고, 면접은 오,,좀 잘한듯! 싶었고 과정안은 느낌이 반반이었어요 근데 점수보니 정말 시험끝낸 직후 느낌과 비슷하게 점수가 나왔더라고요ㅎㅎ 이렇게 좋은 결과 있었던건 정말 다 하느님 덕분인 것 같아요ㅏㅏ

-내년에 2차 준비하시는 쌤들,,진짜 막막하실 것 같은데요,,

놀이사례집에 있는 놀이사례를 인용해 문제를 만들어서 놀이상황을 지원할 수 있는 단위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의 수업시연 연습하거나 자유놀이에서 교사가 유아들의 놀이를 지원하는 내용(갈등중재, 자료지원, 상호작용 지원, 안전관련, 공간지원 등)의 수업을 연습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과정안도 놀이지원에 초점을 둔 형태로 계속 출제될 것 같아요,,,주목,, 이번에 과정안 고득점 받으신분들 복기 있으면 그거 참고해서 틀을 익히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한마디>

-힘든 임용공부를 하면서 '내가 합격하면 유아임용 공부하는 다른 선생님들을 많이 도와주어야겠다!' 다 짐했어요. 공부라는 혼자와의 외로운 싸움이 얼마나 몸과 마음을 지치고 힘들게 하는지 알기에 부족한 저지만 최대한 도움을 드리고 싶었어요.

이렇게 합격해서 선생님들께 도움을 드릴 기회가 생겨 정말 기쁩니다!

임용시험이란게 결과로 보여주어야하는 시험이라 열심히 해도 떨어지게 되면 내 노력한 과정이 모두 물거품이 되는 것 같아 마음이 참 힘든데요, 시험 준비하면서 결과만 보면서 달려가기보다는 이 과정 속에서 내가 얻는 것들은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공부하다보면 오히려 하루하루를 더 최선을 다해서 묵묵히 살아가게 되더라고요. 합격 불합격이란 결과를 떠나서 쉽지 않은 '임용'이라는 도전을 선택하여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것 자체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멋진 선택이라 생각해요. 그런 도전과 과정 속 노력들이 모여 앞으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커다란 재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부할 때 보았던 시로 수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신을 위해 힘든 도전을 기꺼이 선택하고 노력하는 선생님들! 좋은 결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화살기도

-도종환

마지막 남은 몇 개의 잎들이
붉게 타는 늦가을입니다.

지금 바람에 떠는 나뭇잎처럼
몸과 마음이 떨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혹독하고 매서운 몇 번의 겨울
지쳐 쓰러지게 만들던 폭염의 시간과
지루하고 눅눅한 장마의 날들을 지나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들은 있는 힘을 다해 쉬지 않고 달려왔고
이제 마지막 관문 앞에 외롭게 섰습니다.

그들이 거두어야 할 결실이 바꾸니 가득 넘칠 수도 있고
그릇에 차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걷어올린 그물에
펼 펼쳐 살아뛰는 고기가 넘쳐도 자만하지 않고
찬 물줄기 뿐이어도 좌절하지 않게 해주소서

올해 아름 가득 넘치는 과일을 얻었다해도
내년에도 나무를 푸르게 가꾸어야 하며

잎을 잃고 빈 가지로 겨울을 견뎌야 하는 나무도
실패한 나무가 아니라
봄을 기다리는 나무임을 알게 하소서

그리하여 이들이 흘리게 될 눈물이
기쁨의 눈물이든 시련의 눈물이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따뜻하게 안아 주시어
부드러운 손길로 위로해주소서

당신의 온유한 손길이 화살처럼 날아가
굳셈과 평온함
멀리 볼 줄 아는 눈과 담대한 마음을 갖게 해주시어

그것으로 두려움을 이기게 하소서
나뭇잎이 붉게 타는 이 가을 차가운 바람 속에서